

53회 워크샵 올전 연출 인수인계서

올전 연출 62기 허은세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명륜과 올전이 나뉘어 진행하는 워크샵이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옴니버스 극을 올려 따로 연습하되, 함께 공연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출진은 각 캠퍼스별로 연출, 조연출을 두었습니다. 저는 명륜캠퍼스 사람이지만 어쩌다 보니 올전에 가서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에 극회에서 여러 번 올린 적 있었던 <Almost, Maine>의 이야기 중 캐스트 사정에 맞는 이야기들을 선별하고, 오디션을 통해 명륜과 올전이 각각 4개의 이야기, 2개의 이야기를 맡고 프롤로그, 에필로그는 캠퍼스를 섞어서 팀을 이루어 캐스팅하였습니다.

I 캐스트

(1) 캐스트

희망자들은 카카오톡 투표를 통해 참가 신청하였고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구글 공유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일정을 수집 받았습니다. 계획했던 연습시간에 연습이 어려울 것 같은 희망자들과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신입생 워크샵이라는 명목에 알맞게 공연을 한 번도 올려보지 못한 63기 신입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연출-캐스트 연습

- 매주 월, 화, 수, 금 6-10시 고정 연습 진행
- 1주 -> 기초 연기 트레이닝 진행
- 2주 -> 대본 분석
- 3-4주 -> 장면 연습
- 5주 -> 동선 및 도구 이동 정리 / 리허설

- 조연출이 연개 연습 일지 작성

워크샵 특성 상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캐스트들이 단합하고, 꼭 필요한 굵직한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진행하는 지라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연습계획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올해에는 3년만에 대동제가 열렸고, 캐스트에 새내기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축제 휴무를 주는 등 변동이 있었고, 이후에 다른 일정으로 빠지게 된다면 고정 연습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잡아 보충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 준비기간은 다른 동아리도 정기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좁고 방음이 잘 안되는 율전 동방에서 연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동방에서 할 수 있었지만 바닥이 미끄럽고 좁아서 활동적인 트레이닝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용 가능해진 학생회관 연습실 또는 별실을 GLS를 통해 빌려 이용했습니다. 연습실은 한 사람이 신청 가능한 횟수 및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 빠르게 예약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기초 연기 트레이닝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의 스케줄을 확실히 세우고 최대한 따르고자 하며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걷기, 호흡, 발성과 같은 기본적인 연극 활동부터 극회에서 자주하는 게임들을 하며 캐스트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레이닝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의 목적입니다. 연출은 트레이닝을 할 때 캐스트들이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잘 고집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초 트레이닝의 일정을 짤 때 그 목적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이닝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짜고 그날 참석하는 인원이나 장소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며 진행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을 마치고 대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대본 분석으로는 비트 쪼개기, 인물 분석, 주요 사건에 대한 전사 작성, 서브 텍스트 작성 등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 쪼개기와 목적 잡기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인물들의 목적이 변하는 순간들을 기점으로 장면의 비트를 쪼개고 그 안에서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하게 던져보고 목적 상황극으로 이어갔습니다. 만약 목적이 부족함을 느끼면 다시 목적을 잡는 방식으로 몸으로 목적을 느껴보게 하며 대본을 분석했습니다.

장면 연습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역이 정해진 이후에 공연까지의 남은 일정을

고려하여 조연출과 대본 최종 암기 날짜를 정하고 캐스트들에게 한참 먼저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대공연을 준비할 때 대본을 너무 많이 읽었던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경험이 있어서 대본 최종 암기 날 전까지는 캐스트들이 일정한 톤을 입에 붙이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하면서 장면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단순 리딩보다는 목적 상황극이나 하나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대본을 읽는 등의 연습을 진행했고, 미리 통보했던 대본 최종 암기 날 이후에는 대본을 완벽히 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대본 분석을 하며 잡았던 목적들을 체화 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본이 어느 정도 입에 붙은 후에는 동선이나 제스처를 설정하여 장면을 만들어 갔습니다. 올메는 2인극이기 때문에 연출이 도울 수 있는 것 외에 캐스트들끼리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트들이 본인과 상대에게 집중하면서 함께 장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자 했습니다.

신입생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연기나 연극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53회 워크샵의 캐스트들은 모두 63기 신입기수였습니다. 좋은 연극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해 보는 연기가 재미없고 두려운 것이라고 느끼기 보다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감춰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연출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캐스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수하게 명륜과 율전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연출진 회의를 가졌음에도 캐스트 숫자나 각 연출의 진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서 철야 연습이나 공연 직전 연습에서 각 캠퍼스가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하여 통일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연처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준비하는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한다면 연출진들끼리의 충분한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배역 오디션

오디션은 일정상 금요일에 진행했는데 캐스트들이 명륜/율전 나누어져 있는 점, 캐스트 중 다수가 고명복, 창용디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신입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오디션을 보길 희망하는 캠퍼스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 오디션 일정을 짭니다. 명륜에서 먼저 오디션을 보고 연출진들이 시간에 맞게 셔틀을 타고 율전으로 이동하여 율전에서 오디션을 봐 하루 안에 12명의 캐스트들이 오디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디션은 인당 10분으로 잡고 원하는 배역 1~3개 원하는 부분을 읽게 했고 대본 암기 여부는 자유롭게 하되, 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음을 미리 공지하였습니다. 연출진이 시키고 싶은 배역도 시키니 인당 오디션 시간이 촉박하여 15분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디션을 마치고 다음날 연출진끼리 회의를 통해 배역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4) 철야

철야 연습은 아직 동방이 24시간 오픈하지 않아서 이수 영앤리치 연습실에서 진행했습니다. 12시-6시 총 6시간 대관을 했고 12시부터 30분간 몸을 풀고 에너지를 올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뉘어서 2시간 정도 장면 연습을 하고 첫 런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런 이후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을 토대로 장면 연습을 좀 더 진행한 뒤 연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철야는 새벽에 하는 연습이라 참관 스탭과 캐스트 모두 텐션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연출은 텐션을 잘 유지하고 6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잘 짜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등/퇴장 및 도구 이동

장면의 순서와 장 중간에 등장 혹은 퇴장하는 인물, 무대 구성 등을 고려하여 등/퇴장을 할 때 상수/하수 중 어디로 등장하여 어디로 퇴장할 것인지, 누가 어떤 도구를 무대에 올리고 치울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캐스트 별로 본인의 것만 잘 숙지하고 공연에서 틀리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기 위해 연출을 머리를 써야 합니다. 특히 도구 이동은 안전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한 도전을 하는 캐스트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캐스트들이 각 장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도구 이동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함께 등/퇴

장 위치 및 도구 이동을 정했습니다. 정한 뒤에 바로 장면 없이 등/퇴장과 도구이동, 암전만 하는 런을 돌리면서 캐스트들이 본인의 동선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 밤 집으로 돌아가 캐스트들이 각자의 동선을 직접 정리해 연출진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연출은 이를 보고 한 번 더 정리하여 캐스트들이 공연장 백스테이지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II 스태프

(1) 스태프 회의

- 매주 키스텝 회의 오프라인으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명륜 동방에서 진행
- 팀별 현황보고 및 차주 계획 발표 형식

(모든 팀의 팀원들이 필수적으로 한 명이상 참석, 팀장이 아니어도 팀의 의견만 전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며, 팀에서 여러 명이 참석해도 문제없음.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기도 함)

(2) 연출과 스태프

이번 공연의 기획팀에 공연을 올려 본 팀원이 없어서 초반에 기획팀과 업무 분배가 명확히 되지 않아 업무가 꼬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수인계서가 지니는 한계를 고려하여 공연 준비 단계에서 연출과 기획이 만나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이번 공연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팀별 회의 이후 회의록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으나 확인과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개와 스태프가 너무 분리되어 연출과 스태프의 충분한 상의 끝에 정해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공연장 안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더 회의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출진이 스태프 경험이 없어 공연을 준비하면서 캐스트와 연기에만 집중

하여 스태프와 소통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스태프들과도 꾸준히 회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같은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연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키스텝과 연출을 더욱 활발한 상황 및 의견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Ⅲ 공연장

공연장 대관기간 5/19-5/21

- 5/19-20 무대, 조명 철야 무대. 조명 설치 및 조명 에어리어 설정

캐스트들의 등퇴장이나 동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연출이기 때문에 무대 설치를 할 때 무대가 캐스트들이 연기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피드백해야 합니다. 조명도 마찬가지로 공연장에 가서 처음으로 조명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할 때 장면의 분위기나 그리고자 하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조명을 픽스해야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에피소드에 따라서 야외/실내가 달라서 이를 조명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를 오래 고민했었습니다. 무대와 조명이 설치되는 것을 보고 이 둘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확인하며 피드백을 합니다.

- 5/20 공연 리허설

무대팀은 계속해서 설치 및 수정 작업을 하고 조명도 무대에 맞는지, 또 캐스트들의 위치와 조명의 에어리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의 극이라 각 팀별로 리허설을 하는 것이 가능해서 미리 리허설 당일 일정을 수집하고 리허설 일정을 짜서 2시부터 8시까지 팀별 리허설을 진행하고, 8시부터는 전체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팀별 리허설에서는 조명 에어리어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캐스트들은 공연장에 들어가면 도구 이동이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체 런 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조명팀에서도 전체 리허설을 통해 캐스트들이 매 안전마다 도구 이동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대공연을 올렸던 혜화당은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서 오퍼실에서 도구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성균소극장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허설 날은 이렇게나

할 일이 많고 중요하지만 학기 중에 평일로 리허설을 잡아 일정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전체 리허설을 한 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캐스트들은 공연장에 처음 들어가면 밝은 조명이나 어색한 무대 때문에 하지 않던 실수들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소품을 잘 챙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캐스트들이 무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소품이나 도구 이동을 까먹지 않도록 모두 파악하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5/21 공연 당일

모두 9시에 콜을 해 무대와 조명은 공연 직전까지 수정했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팀에 콜 시간을 공지하지 못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각 팀별로 몇 시에 오는 것이 좋을지 리허설을 보면서 잘 생각하고 확실하게 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리허설날 런을 많이 돌리지 못해서 이른 시간에 캐스트들이 모여 분장을 받았습니다. 동선 리허설 1회, 최종 리허설 1회를 2시 전으로 끝내고 공연을 올렸습니다.

공연 시작 전 기획 인사를 하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캐스트들이 지인들과 사진을 찍도록 하는데, 다음 공연을 위해 무대 위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합니다.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좋으나 오직 사진촬영만 내부에서 하고 지인과의 대화는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캐스트들에게도 지인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올 시간을 정해서 확실히 정해서 알려야 합니다.

IV 마치며

공연을 마친 직후에는 시원섭섭하다가 그 이후에는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5주간의 일들을 글로 남기다 보니 아쉬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하며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참 걸립니다. 문서에 담긴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같습니다'로 마치네요.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확신을 가지기 가장 힘든 게 연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용기를 주셨던 선배님들과 너무나도 부족했던 연출을 믿고 따라와줬던 공연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언젠가 이 글을 읽을 또다른 연출분께 응원의 인사를 남기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